

‘소통·화합, 불교중흥’ 발원

11일 부·실장 인사 완료...총무원 33대 집행부 출범

총무-영담 기획-원담
재무-상운 문화-효탄
사회-혜경 호법-덕문
사서실장에 경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신임 총무부장에 영담스님, 기획실장에 원담스님을 임명하는 등 33대 총무원 집행부 인사를 마무리했다. 재무부장엔 상운스님, 문화부장엔 효탄스님, 사회부장엔 혜경스님이 등용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부·실장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종단 중흥의 시대를 열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종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부장 영담스님을 비롯한 새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은 “열심히 잘 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며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에 앞서 10월31일 사서실장에 경우스님을 6일

호법부장에 덕문스님을 임명했다.

▶관련 기사 3면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고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고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0대부터 14대까지 5선의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불교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롬비니 이사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부천 석왕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무상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선원,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 불국사 선원, 범주사 총지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서울



영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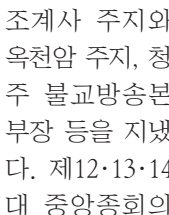
원담스님



상운스님



효탄스님



혜경스님



덕문스님



경우스님

조계사 주지와 옥천암 주지, 청주 불교방송본부장 등을 지냈다. 제12·13·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

수국사 주지로 일하고 있다.

재무부장 상운스님은 능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고암스님을 계사로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금어선원,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제13대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임명 직전까지 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진해 정암사 주지다.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부실장 가운데 유일한 비구니로 도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해공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4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혜경스님



덕문스님



경우스님

동학사승가대학과 봉선사 농업학림에서 경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강사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인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대승사 대승선원, 해인총림 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총무원 재정국장 및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화 전등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손수 김장을 담고 있다. 신재호 기자

“따뜻한 겨울 나세요”

먹거리나눔協 13일 조계사서 ‘김장행사’ 개최

“자비와 사랑을 담아 바무린 김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담은 ‘행복나눔 김장행사’가 열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성공회푸드뱅크·부스리기사랑나눔회가 연합한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SK텔레콤과 함께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김현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목사,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 김재열 성공회 푸드뱅크 신부, 정만원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총 146톤(7만5000포기). 참가자들은 비

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선 비금도의 천일염, 제주 새우젓, 제천 고춧가루 등의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그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행사장은 봉사자들의 분주한 손길로 금세 혼란해졌다.

이 자리에서 담근 김장김치는 전국의 무료급식소와 수도권 내 복지시설 등 723개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59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보다 36톤 더 늘려 총 13만 명의 빈곤 소외이웃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행복나눔 김장행사’는 1996년 이후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14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동안 약 63만 포기의 김치가 생황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배달돼 연말 대표적인 김장 나눔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종교계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며 “온 인류가 보시의 마음으로 살아가 때 성불의 인연도 맺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겨울을 맞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대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KT&G 복지재단 등 중부지역 14개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1만명 무료진료 기념 콘서트

‘반갑다연우야’ 12월4일 KBS출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반갑다연우야(총단장 구자선)는 오는 12월4일 오후7시 서울 KBS홀에서 ‘1만명 무료진료 기념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자선콘서트는 반갑다연우야가 지난 2006년 4월 발족한 뒤 취약계층 1만명을 무료진료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반갑다연우야 홍보대사인

재즈가수 웅산이 직접 기획한 이번 공연은 웅산의 재즈공연에 이어 아마도이자람밴드 이자람의 판소리 공연, 해금연주자 ‘꽃별’의 해금 연주,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의 하모니카 연주, 뮤지컬 배우 서범석의 노래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인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서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전도, 불사)

교육원 부장급 인사 단행

교육부장-법인스님...불학연구소장-원철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법인스님이, 불학연구소장에 원철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1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 교역직 종무원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관련 기사 3면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모든 교역직 종무원 인사가 마무리됐다”며 “종

무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앞으로 승가 교육 전반을 평가하고 교육불사에 위법망구 정신으로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승가교육은 종단의 100년 대계라는 철학과 대안을 갖고 헌신해온 교육원장 스님을 모시고 교육불사에 협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큰 원력을 갖고 원장스님을 보필하며 교육불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인스님



원철스님

신임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교육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승가가 어떤 방향을 나아가 하는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상원스님을 은사로 1977년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실상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조계종 개척회의 총무원 교무국장과 광주 향림사 주지,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부주지, 불교신문사 주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등을 역임했다.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법전스님을 은사로 1987년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와 은해사 승가대학원,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동국대 선학과 강사 등을 역임했다. 또 해인사 월간 《해인》 편집장과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재정국장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두루 거쳤다. 김하영 기자

공고 제2009-4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3. 10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3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중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9. 9. 18.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09. 9. 18. ~ 2010. 3.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교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피해종교단체, 대리인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00~18:00 한 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대리인에 의한 경우: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이면,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T. 02-748-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 피해자의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